

5·18 계엄군 “희생자 유해 찾기 힘들수도”

당시 3공수여단 김귀삼 중사 고백
광주역서 시민군 대검으로 찢려
교련복 입은 학생들 도주시키기도
항쟁 1년후 보안사가 암매장 추적
시신들 화장당했을 가능성 있어

“저는 5·18 계엄군입니다. 광주 시민들
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
립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소속
으로 계엄군이었던 김귀삼(68)씨가 눈
물로 그날의 참상을 털어 놓았다. 그는 또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서 이뤄진 암매
장과 관련 ‘화장 가능성’을 제기해, 유해
발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등은
광주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오늘의 증언이 5·18 진상규명의 첫걸음
이다’는 주제로 계엄군 김씨와의 인터뷰
를 진행했다.

●43년 만의 사죄

김씨는 답답한 목소리로 “1980년 5월
20일 광주역에서 진압작전 도중 시민군
중 한 사람을 찢렀다”고 고백했다. 당시
광주역에서 시민군을 강제해산하라는 명
령을 하달받은 뒤 밀려오는 시민군을 진
압했지만 상황이 열세가 되면서 점점 김



김귀삼 5월 항쟁 당시 계엄군이었던 김귀삼(왼쪽)씨가 14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대 동홀에서 열린 ‘오늘의 증언이 5·18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증언회에서 5월 당시 총 상 피해자 김태수씨와 손을 맞잡고 있다. 나건호 기자

씨가 소속된 12대대가 후퇴하기 시작했
다. 김씨는 “시민군에게 위협을 주고자
포로로 잡혀왔던 시민군 한 명을 대검으
로 찢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학생 2명을 도주시켰다고 전했다.

김씨는 “한창 진압 중인데 떠밀려온 것
인지 시민군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련복을 입은 학생 2명을
발견했다. 어린 학생들이 눈에 밟혔던 김
씨는 몰래 두 학생을 담장으로 넘겨 도망
치게 했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옮겨 경계 근무를
서며 접근 차량에 대해 총격을 가하라는
의미로 실탄을 지급받기도 했다. 김씨는
“실탄을 쏘다는 것은 총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며 “당시 (우리에게) 발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씨가 있던 12대
대와 맞서 총상을 입었던 김태수(5·18부
상자중앙회 이사)씨도 참석해 현장 상황
을 같이 확인해 나갔다.

피해자 김씨는 “교도소를 접근하려면
담양으로 빠지는 길목으로 다니는 차량
을 쏘아 하는데 왜 교도소에서 1km나 떨
어진 도로 위 차량을 쏘냐”는 물음에 그는
“교도소와 도로 사이 보리밭에서 매복을
하며 접근하는 시민군을 위협하기 위한
총격이 있었고 당시에도 인명피해가 있
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며 “그 이후로
줄곧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실종자 유해 화장설

현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원회(조사위)를 비롯해 가장 주력을 두
는 암매장 진상규명에 관해 화장으로 유
해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김씨는 답했다.

김씨는 “5·18민주화운동이 있고 1년
후 보안사령부에서 찾아와 암매장 조사
를 진행했다. 당시 암매장·가매장 구역을
물어봤다. 전남대학교 기숙사에도 시신
을 안치시켰다는 사실을 보안사에 전달
했다”며 “그것 때문인지 기숙사 터에 안
치된 시신들이 없어졌다. 부당한 작전임
을 알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게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시신을 전부 수거해서 화
장해서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유
족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실종자 유해를
찾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
명했다.

김씨의 말은 조사위에서도 일부 확인
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실제 5·18민주화

운동 후 보안사령부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을 찾아
암매장에 대해 물어 봤다는 증언이 있었
다.

무엇보다 조사위는 계엄군들의 증언
속에서 ‘암매장·가매장 시신을 태워 없앴
다’는 주장이 나와 화장터 3곳을 중심으
로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위는 △전주 승화원 화장터 △광
주동합병원 소각장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화장터의 당시 임직원, 화장기록
등을 뒤져봤지만 화장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위는
화장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
률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7호에서 규정한 조사 범위
에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이라고
명기됐다. 암매장뿐만 아니라 화장 등의
방법으로 유기한 정황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 중이다”며 “다양한 증언이
나온 이상 암매장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암매장 희생자에 대한 화장설은
505 보안부대 출신 허정환씨가 지난
2019년 5·18 이후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하거나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면서부터 줄곧 제기돼 온 내용이
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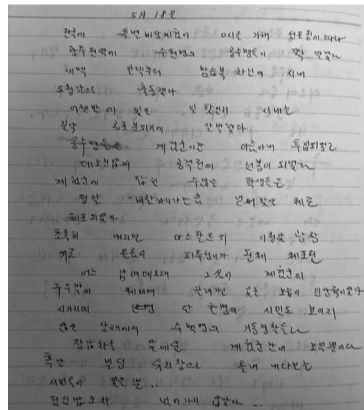
“5월 18일, 피투성이 학생들이 계엄군에 끌려가”

5·18기록관, 당시 전경 일기장 공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
포됨에 따라 광주 전역에 수 천명의 공수
병들이 짝 깔렸다. 새벽 일찍부터 방습복
차림에 시내 도청 앞으로 출동했다. ... 중
략 ...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체포된 어
느 남녀 데모대 2명이 계엄군의 구둑발에
채이며 끌려가고 ... 중략 ...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 5월 18일
1980년 5·18 현장 기록을 담은 전투경찰

의 일기장(사진)이 43년만에 공개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1980년 5·18
현장 기록을 담은 전투경찰의 일기장을
기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록물은 1980년 이후 현직 경찰
관으로 복무하다 퇴직한 경찰관이 43년간
보관한 기록물로, 당시 급박한 현장 상황
을 담고 있다. 5·18 현장에서 쓰여진 경찰
의 일기장이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5·18 이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신변의
위협을 우려했던 A씨는 기록물을 숨기고

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해당 기록물을
5·18기록관에 기증하기로 결심, 기록물
발굴조사를 거쳐 기증이 이뤄졌다.
일기장에는 기증자 A씨가 1979년 겨
울부터 1980년 9월 초까지 전남도경 제2
중대원으로 근무하던 기록이 꼼꼼하게 기
록돼 있다.
A씨는 긴박했던 5·18 현장에서도 일기
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980년 봄 광주
에서 전개되는 학생들의 민주화시위 등이
가열되는 과정을 남기고자 일기에 신문스



의 고충도 담았다.
일기장이 5·18기록물로서 가치가 큰 이
유는 1980년 5·18 시민과 계엄군의 대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렸다는 점이다.
A씨는 5월21일 계엄군이 후퇴하고 안
병하 경무국장 지시에 따라 경찰이 해산
되면서 출신지로 돌아가는 상황과 5월27
일 재소집령을 받아 복귀하고 31사단에서
80년 8월 초 진행된 삼정교육대 차출
활동까지 순차적으로 적었다.
A씨는 “5·18 일기장은 당시 전투경찰
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